

西溪 朴世堂의 對淸 覘國 一考

金 鍾 秀*

1. 머 리 말
2. 漢族의 실패와 청조의 범죄자 및 叛民 대책
3. 淸朝와 몽골의 군사적 동향 정탐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양란(兩亂) 직후인 17세기 중 후반을 자신의 주요 활동기로 삼았던 인물이다. 이 시기의 조선사회는 양란이 초래한 미증유의 정치 사회적 혼란 양상과 더불어, 중원에서는 명청(明清) 간에 왕조가 교체된 복잡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편승되고 있었다. 이제 조선사회는 양란으로 초래된 전후 질서체계 수립이라는 국가 내부적 과제에 추가하여, 청조가 주도하는 새로운 동아시아적 질서체제에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난제를 덤으로 안게 되었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노력이 국내의 제반 정책적 노선을 향해서도 그대로 규정력을 행사하는, 매우 특수한 정치적 현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랑캐(胡)로 치부되었던 만주족에 의한 청조의 출현은 조선사회를 일대 혼란 속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에 춘추(春秋)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한 명분론적 대명관(對明觀)은 명청 간 왕조 교체에 따른 조선 지성계의 새로운 대응양식으로서, 차츰 시대적 지배이념으로 정착해 가고 있었다. 또한 조선사회는 내외의 위기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려는 대처 노력을 다각적인 국가재조(國家再造) 담론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박세당의 무신년(1668) 북경 사행(使行)은, 이처럼 내외로 복잡한 시국과 교체기적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수행되었다. 박세당이 조선 사절단의 삼사(三使) 중 서장관(書狀官) 자격으로 사행(使行)에 나선 시점은, 병자호란(1636)이 발발한 해로부터 32년 이후의 일이다. 무신년 11월에 연행에 나서서, 이듬해 봄인 3월에 귀국을 했다. 당시 조선왕조는 중원의 새 주인인 청조와 맺은 조약을 실천하기에 급급했으나, 정작 청조 또한 중원에서 여전히 불안한 정국 속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귀국 이후에 사행 경위를 보고할 책무를 지닌 박세당의 시선은 매우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시선은 점국(覘國)으로 지칭되는 대청 정탐(偵探)의 성격을 지니며, 청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철저한 탐문을 겨냥하는 눈빛이기도 했다.

박세당은 무신년 연행(燕行) 체험을 두 종류의 연행록인 『서계연록(西溪燕錄)』과 『사연록(使燕錄)』으로 마무리해 두고 있다. 금번 논의에서는 주로 연행일기에 해당하는 전자와 박세당의 문집인 『서계집(西溪集)』을 주요 텍스트로 삼도록 하겠다. 이제 청조를 향한 박세당의 주요 시점(視點)들을 짚어보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관찰 포인트들이 재구축한 대청 인식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무신년 연행을 통해서 형성된 박세당의 대청인식의 윤곽을 규명하는 첫 작업이라는 의미를 겸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를 청조의 정치·군사·사회적 분야에 한정하려 한다. 이 영역들은 박세당이 구축한 대청

* 세명대 강사

인식의 윤곽 중 중요한 세부적인 한 축(軸)을 구성하고 있다.

2. 漢族의 실패와 청조의 범죄자 및 叛民 대책

(1) 使行과 靺國

실학을 집대성했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사신으로 연경행(燕京行)에 나서려는 복암(伏菴) 이기양(李基讓, 1744~1802)에게, 일국의 사신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가 있다.

“옛날에 대부(大夫)로서 다른 나라에 사행을 가는 자는, 작은 일(事) 하나를 보고서도 그 나라 예의가 돈독하고 얇은(敦薄) 정도를 알며, 미미한 한 가지 사물(物)을 보고서도 그 나라 법 기강(紀綱)의 해이(弛)와 확립(立) 정도를 알아서, 이(사·물 관찰)로써 (해당 국가의) 성쇠를 점치고 흥망을 결단하였으니, 이를 일러 ‘그 나라를 살펴본다(靺國)’고 하는 것이다. 점국은 명민함과 예지를 두루 갖추서 발군한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다.”¹⁾

다산은 위 인용문을 통하여 사신의 중대한 임무를 ‘점국’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점국은 내용상 정탐(偵探)과 동의어이며, 달리 남몰래 형편을 알아본다는 의미인 점후(覘候)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다산은 대상국의 사물 점국을 통하여 예의와 법 기강을 정탐함으로써, 그 흥망성쇠의 추이를

1) 丁若鏞, 『與猶堂全書』 2집(영인본), 『送李參判使燕京序』, p. 392. “古者 大夫之使於異國者, 見一事之小 而知其國禮義之敦薄, 見一物之微 而知其國法紀之弛立, 以之卜盛衰決興敗 是之謂靺國. 靺國非有明敏睿知 出乎其類者, 不能也.”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단 다산이 점국의 우선적 대상으로서 예의와 법 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산은 한양에서 북경(燕京)까지 3천여 리나 되는 대장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조선 사신단 중에서 “지금껏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물품들을 단 하나도 얻어가지고 돌아와 전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한 “어찌하여 사람들이 무심히도,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주려는 뜻이 것처럼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통하여 통탄을 금치 못했다.²⁾ 반면에 정약용은 이용후생을 실천한 이상적 모델이자 사신(使臣)으로서, 고려 말엽의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을 주저 없이 지목했다. 다산은 문익점이 목화씨를 전파시키면서, 아울러 씨아(攪車)와 실 뽑는 기구(軋車)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백성들에게 전수하게 되었고, 결국 “민간에서 실 뽑는 기구를 문래(文來)로 부르며 그 공로를 잊지 않고 있으니, 그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라는 극찬을 가하고 있다.³⁾ 다산에 의해서 문익점은 이용후생의 물품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점국을 몸소 실천한 사신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다산은 이기양에게 문익점의 경우를 힘써 실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기에 이른다.

사실 정도나 양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의 경우 줄곧 점국을 시도해 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외의 정세가 복잡하고 미묘한 시기에는 그 범위나 강도 또한 한층 더 광범위하고 치열했던 정황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1662년에 연행에 나섰던 양파(陽坡) 정태화(鄭太和, 1602~1673)는 몽고의 변란(희봉사)에 주목한 기록이 있다.⁴⁾ 이

2) 丁若鏞, 위의 책, p. 393. “燕之距漢陽三千餘里 而冠蓋之往復徠去者, 繹繹乎織於路矣. 而所以利用厚生之物, 曾未有得其一 而歸傳之者. 何人之契然 無澤物之志, 若是其極哉.”

3) 丁若鏞, 위의 책, p. 393. “昔文益漸 得棉之種而歸而種之, 並得其攪車軋車之制 而傳之民間. 民間謂軋謂文來 而不忘其功, 不其偉歟 於公之行, 唯以是勉之.”

4) 『顯宗實錄』 현종 10년 3월 4일(丁酉). “鄭太和曰 向之所憂者 蒙古作變 梗於貢路.” 거론된 ‘蒙古作變’이란 2장 3절에서 취급할 몽고의 희봉구 사태인 ‘희봉사’를 지칭한다. 정태화는 연행 결과를 『壬寅飲水錄』으로 마무리했다.

후 1673년에 오삼계(吳三桂)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선 사절단은 목격자의 전문, 당보(塘報)·순보(循報)와 같은 정부 간행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숙소에 이웃한 유구 사신에게 들은 내용까지 속속 보고하기까지 했다.⁵⁾ 이처럼 조선 사절단들에 의해 시도된 지속적인 점국의 노력들은, 마침내 1828년(순조 28) 홍기섭(洪起燮)의 보좌관(幕裨)으로 사행에 나섰던 박사호(朴思浩)에 의해서 「靑國」이라는 별도 소재의 작품으로 결정되기에 이른다.⁶⁾ 조선 사절단들이 시도한 점국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국의 예악과 법제도 외에도, 정치·경제·군사·문화 영역과 산천 지리 등까지도 포함되었다. 후대 북학과(北學派)의 경우에는 이용후생과 관련된 사항들이 점국의 새로운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를 보여 준다.

박세당의 경우 이용후생과 관련한 내용은 드문 편이나, 여타의 내용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는 귀국 이후에 명재(明齋) 윤중(尹拯, 1629~1714)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청조의) 정령과 득실(에 관한 정보)은 더욱 탐구(探窺)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소감을 피력했다.⁷⁾ 여기서 지칭된 ‘탐구’는 사실상 정탐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래의 언어 사용상의 습관에 따라서 주로 점국 개념을 채택했다.

한편, 정사(正使) 이경억(李慶億)과 부사(副使) 정약(鄭鑰)을 수행한 서장관 박세당이 연행에 나섰던 1668년(현종 9)은 병자호란이 발발한 해로부터 32년 이후이다. 또한 청조는 강희제(康熙帝) 즉위 7년째를 맞는 해였다. 이 무렵의 조선은 병자호란이 남긴 제반 파장을 치유해 나가야만 했던 시기였으며, 청조 또한 중원에서 아직 주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한 정국이였다. 조선은 명청 간의 교체기적 질서체제에 적응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져 가는 명조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간직하고 있던

5)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39(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p. 429.

6) 朴思浩, 『心田稿』 卷2, 『留館雜錄』(靑國). “靑國有術. 古人得之言語問答之外 如更鼓橋梁 執玉高卑 陣詩閱樂 市價貴賤 有所徵矣. 今人一入燕京 輒曰 ….”

7) 각주 29)를 참조.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청조를 향해서 시도된 박세당의 정탐 내용도 경제·문화적 분야보다는, 주로 정치·군사·사회적인 분야에 더 치중된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박세당이 청조를 대상으로 시도한 점국 내용은, 부분적으로 후대 대영제국의 메카트니(George Macartney, 1737~1806)가 중국을 정탐했던 맥락을 연상케 해 주는 감이 없지 않다.⁸⁾ 물론 1793년 발해만의 대고항(大沽港)에 입항했던 메카트니의 경우 중국과 자유로운 무역을 전개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청조 침략을 가상한 시뮬레이션하에 군사적 정탐까지 치밀하게 병행했었다는 점에서 박세당의 점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후로 본 논의에서는 연행 관찰자인 박세당의 시선이 다양한 소재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들 관찰 포인트를 몇 항목으로 세분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漢族의 차별 실상

우선, 당대 조선의 지식인이 견지했던 평균적인 지성 감각과 마찬가지로, 박세당 역시 존주론(尊周論)에 기초한 대명(對明) 명분론적 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명조야말로 중화문명의 정수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임란 시 조선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푼 상국(上國)이기도 했다. 당시 대명 의리론은 조선 지성계의 평균적인 상식감에 해당했다. 물론 춘추대의론에 관한 박세당의 입장은 노론계의 거두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그것과는 사뭇 변별되는 바가 있다. 이 점은 박세당이 간직한 명분론에는 그 경직도에 있어서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임을

8) 김상조, 「박지원과 메카트니의 중국 인식 비교」, 조규익 외 엮음, 숭실대학교 한국전통문예연구소, 『연행록연구총서8(사상·의식)』(學古房, 2006), pp. 16-28을 참조.

암시해 준다. 그러나 박세당 또한 성적(聖跡)으로 집약되는 명의 유풍(遺風)을 향하여 강렬한 향수를 품고 있었다. 박세당은 귀국 후에 반곡(盤谷) 이덕성(李德成, 1655~1704)의 부연(赴燕)에 화답하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망한 명을 잊지 못하는 “연유로(燕遺老)”로 규정하기도 했다.⁹⁾

이제 박세당은 북경으로 향하는 연행 길목에서, 명조의 후예와 그 유민인 한족(漢族)들을 향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박세당은 영평(永平) 지역에서 명의 후예와 순치제(順治帝) 장자(長子)의 거취 문제에 관한 탐문을 시도하게 된다. 박세당은 “듣자하니 명의 후예들 중에는 서방(西方) 오랑캐(羌胡) 땅에 사는 자가 있다는데, 실제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는지?”와 “청 순치제의 장자 또한 서달(西撻)에 있어서, 항시 쟁단(爭端)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를 질문했다. 이 탐문에 대하여 상대는 “명의 후예 중에서, 선황(先皇)[의종(毅宗)]의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라고만 응답했다.¹⁰⁾ 박세당은 대화를 나눈 상대가 조금은 신실해 보여서, 들었던 소문대로 기록을 남겨 두기로 하였음을 밝혀 두고 있다.¹¹⁾ 아무튼 박세당의 첫 탐문 속에는 명청간 왕조 교체에 따른 조선 사신단 혹은 지식인의 관심이 잘 녹아 있어 보인다.

저문 명조를 향한 박세당의 강렬한 향수는 만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처지에 놓인 한족(漢族)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한족의 차별 실상에 대한 박세당의 정탐은 자연스럽게 청조에 대한 전반적인 정세 탐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선 강역을 벗어난 지 5일

9) 朴世堂, 『西溪集』, 補遺錄, 〈贈李參議德成使燕〉, p. 83. “西去迢迢路幾千 巫閭山外少人煙 請君試問‘燕遺老’ 能復衣冠憶往年.”

10) 朴世堂, 『西溪燕錄』, 〈己卯〉, p. 365. “問 聞明後裔有在西方 姜胡中者 果有此說也. 順治長子 亦在西撻 常有爭端 亦然乎. 答 明之後 未聞先皇之子有此聞.” 당일 박세당과 대화를 나눈 상대는沙河驛의 주인인姜秀才였다: “朝餐于野鷄坨 夕宿沙河驛 主人姜稱秀才 夜與語.”(〈己卯〉, p. 363).

11)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5. “臣所與問答者如此. 其人亦似稍慮故 隨聞以記.”

째로 접어들던 날인 1668년 11월 25일(辛酉), 박세당은 일명 진이보(鎭夷堡)로도 불리는 통원보(通遠堡)에서, 한 문관(門館)의 선생인 김계정(金啓正)과의 문답을 통하여,¹²⁾ 관동과 관서 지역에서 명의 유민들이 겪는 고충과 그 구체적인 실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박세당은 김계정에게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은 탓에, 지금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와 민생이 안락한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라는 유도성 질의를 띄웠다.¹³⁾ 청의 정세 전반을 염담하려는 박세당의 이 질문에 대해서, 상대인 김계정은 “관서(關西) 지역은 제다 기하권(旗下圈)[청의 팔기제(八旗制)]에 들어서, 피점령민(占民)들은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때문에 관동(關東)으로 흘러들어 차역(差役)을 피해 면하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라고 대답했다.¹⁴⁾ 물론 피점령민들이 반드시 모두 한족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을 통하여 피점령민인 다수의 명의 유민, 특히 한족이 당하는 차별 정도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어서 박세당은 기하(旗下)가 어떤 종류의 관직인지를 문의했다.¹⁵⁾ 이 질문을 통해서 박세당은 ‘기하’로 지칭된 청의 팔기제도(八旗制度)에 관해서, 사전 정보나 지식이 부재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팔기제도는 약

12) 朴世堂, 『西溪燕錄』, 〈辛酉〉, pp. 342-343. “平明. 踰長嶺 … 夕至通遠堡 一名鎭夷堡 宿察院. 有小兒數輩 來見叩拜 自言讀論語 … 問其有師否 … 則姓名金啓正 撫寧縣人 家貧無資 在此堡爲人作門館.” 박세당은 문관에 대하여, “당시 중국의 풍속에는 스승을 집으로 초빙해서 그 자제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이를 문관 선생으로 불렀다(中國之俗 迎師于家 以教其子弟者, 謂之門館先生)”라는 주석을 덧붙여 놓고 있다(343쪽). 한편, 『西溪燕錄』은 임기중 編刊, 2001, 『燕行錄全集(전100권)』(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에 권23으로 실려져 있다.

13)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 343. “又問 初履此土, 不知如今 天下清平 民生安樂否.”

14)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 343. “答 關西之地 盡被旗下圈, 占民不堪命 故流落關東, 以圖躲避差役者多.” 여기서 관내는 관서와, 관외는 관동과 동일한 의미로써, 그 경계는山海關이다. 더러 關東은 더러 遼東 일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差役이란 원래 宋代의 課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이 과역법은 민가를 九等分하는 가운데, 상위 四等에서 인부를 징발하여 賦役을 시키고, 하위 五等에게는 부역을 면제시켰다.

15)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 343. “問 旗下是何等官. 答是王子庄頭.”

7,5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조직한 1구사(gūsa)인 기(旗)를 최종 단위로 삼는 군·정(軍政) 합일의 제도이다. 1607년에 홍(紅)·황(黃)·남(藍)·백(白)의 사기(四旗)가 성립하였고, 청 태조(1616)가 다시 양홍(鑲紅)·양황(鑲黃)·양남(鑲藍)·양백(鑲白)의 팔기로 나누어 전 민을 모두 기의 예하에 두게 하였다.

덧붙여서 박세당은 “관외(關外)에서는 관내(關內)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답하기를, “관동은 오래도록 황폐한 지역으로 인민들이 잠시 집결을 하였으나, 또한 겨우 입에 풀칠이나(糊口) 할 따름이지요. 관서 지역의 경우는, 인민들이 도망가고 흩어져서 전곡(錢糧)(의 부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관동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도리어 그만큼은 못한 실정이지요!”라고 대답했다.¹⁶⁾ 이 지역 일대에 걸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 박세당은 강남의 제남(濟南)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 정도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질문을 던졌다.¹⁷⁾

더 나아가 박세당은 한족이 받는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요한 정탐을 병행해 나가기도 있었다. 특히 박세당은 관리를 임용하는 과정상에서 만주족에 비해서 한족이 받는 차별 실태를 파악코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오령(五嶺) 외 지역의 경우, “(하위의 한직인) 청냉(淸冷)한 관아(官署)는 대부분 한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더러는 재력이 있는 만주족이 옮겨 오기도 한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¹⁸⁾ 이어서 박세당은 고위직 대신들의 수탈과 민족 간 차별 문제로 그 탐색의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16) 朴世堂, 앞의 책, 〈辛酉〉, p. 343. “又問 關外視關內如何. 答 關東久荒之地 人民暫集, 亦僅能糊口而已. 至于關西 人民逃散 錢糧太重, 較之關東 反不如耳.”

17)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p. 343-344. “問 聞今年濟南等地地震 江南龍鬪 人命多損 是 否. 答然.” 제남은 지금의 山東 歷城縣이다.

18)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5. “五嶺外皆是淸官耶. 有漢官同守乎. 答 淸冷官署 俱是漢人 如有錢在滿洲居移.” 五嶺은 중국 남쪽에 있는 다섯 개의 嶺인, 大庾嶺·始安嶺·臨賀嶺·桂陽嶺·揚陽嶺을 말한다.

이에 박세당은 집행(執政)한 대신들 중에서 한민의 기득권(田)을 강탈해서 만주족에게 재분배한 이른바 권지(圈地)에 관한 소문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1667) 정월 16일까지는, 영평부(永平府) 모든 관아의 만주족 비율은 (고작) 10, 20퍼센트였으나, “(지금은 대신 집행자들이) 십 중에 팔구 할을 만주족에게 부여했으며, 한인은 불과 일이 할만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¹⁹⁾ 애초 청조는 내각(內閣)과 육부(六府)의 관리를 임용함에 있어서 만주족과 한족을 동수로 병용하는 균형감 있는 화합책을 적용했지만, 지방의 행정 관아의 경우 한족에 대한 차별 정도가 다소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이는 지방행정의 경우 만·몽(滿蒙) 출신의 총독(總督)이나 순무(巡撫)의 감독을 받게 하고, 한인 위주로 구성된 녹영(綠營)도 팔기장군(八旗將軍)이나 중앙의 지휘 아래 종속시킨 강희제의 정책이 남긴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한족의 차별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한 박세당은, “어찌 인주(人主)로서 이따위 정령(令)을 시행한단 말인가?”라는 책임 귀속에 관한 비판의 목적을 더 높였다. 이에 강수재는 명칭 간에 왕조가 교체된 이후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대답으로 응수했다.²⁰⁾ 이런 사정 때문에 귀국 후 정사 이경억은 한인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하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존한다는 상황 판단을 현종에게 보고하게 된다.²¹⁾ 그러나 박세당의 인식은 달랐다.

이어서 박세당은 자신이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상대의 답변을 통해서

19)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問 聞大臣執政者 多奪漢民田 以與滿人 然否. 答 去年正月十六日 永平盡書 滿洲十存一二. 問 十取八九 以與滿洲 而漢民只得一二乎. 曰 然.”

20)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何人主行此令. 答曰 但聞兩黃旗換地 以至如此.” 여기서 鑲黃期는 애초 홍타이지 관할이었으나, 순치제가 친정한 이후 시점에는 그가 旗主가 되었다. 박세당은 이 표현에 내포된 의미를 다시 질문했지만(“兩黃旗爲誰 則不肯明說”), 결국 무위에 그치고야 만다. 박세당은 다소 복잡한 팔기제도에 관해서, 여전히 문외한의 상태였다. 한편 秀才는 鄉試의 자격이 있는 府·州·縣의 生員을 지칭한다.

21) 『顯宗實錄』 현종 10년 3월 4일(丁酉). “慶億等具以所聞見對曰 … 最可危者 侵虐漢人 罔有紀極 皆有曷喪之歎 若有桀鶯者一呼 則將必有土崩瓦解之勢矣.”

실로 놀라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 답변은 박세당에게 일면의 부러움과 함께, 동시에 깊은 절망감마저도 안겨 준 응답이었다.

“질문: 황제가 친정(親政)한 이후로 민심(의 동향)은 어떠한가요? 답변: 매우 좋습니다. 재차 물으니, 곧장 답변하기를, 황제께서는 훌륭한 점(好處)이 너무나 많은 분이십니다.²²⁾

사하역(沙河驛) 주인으로부터 의외로 놀라운 답변을 접한 박세당은 서둘러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옮겨갔다. 그러나 박세당이 내심으로 받은 충격 정도는 실로 컸을 것이다. 애초 강희제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순치제를 계승하여 즉위해서, 오배(鰲拜)를 비롯한 4대신(大臣)의 보정(輔政)으로 통치를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 사절단이 귀국한 1669년에는 4대신 중 전횡을 일삼은 오배를 제거하고 친정(親政)을 시작함으로써, 드디어 청조가 중원지배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강희제는 한갓 오랑캐풍의 거친 무인 수준 이상의 대단한 호학 군주로서, 문무가 잘 겸비된 지도자였다. 동시에 강희제는 빼어난 기예와 불심(佛心)까지 갖춘 군주였으며,²³⁾ 농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 이를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던 바,²⁴⁾ 여러 정황상 사하역 주인이 내린 강희제에 대한 평가가 결코 공치사에 머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긍하게 된다. 그는 사후에 관화(寬和)한 정치작풍(政治作風)을 실천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²⁵⁾

22) 朴世堂, 앞의 책, <己卯>, p. 365. “問 皇帝親政後 民心如何. 曰甚好. 又問 則答曰 皇帝好處甚多.”

23) 朴趾源 저/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熱河日記』, 『성경잡지(盛京雜識)』, <성경의 가람기(盛京伽藍記)>, p. 212. 연암은 강희제의 기예와 불심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경(盛京)에 위치한 성자사(聖慈寺)에 손수 작은 탑 수백 개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주사위만하고, 그 아로새긴 솜씨가 기묘하여 신(神)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만하다.”

24) 朴趾源, 위의 책, 『압록강을 건너며(渡江錄)』, p. 80.

25) 傅樂成 著/辛勝夏 譯, 『中國通史(下)』(지영사, 1999), p. 770.

박세당은 강희제의 친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강희제의 실질적인 교화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차후 박세당은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도 강희제의 동정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박세당이 받은 충격은 두 가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첫째, 군권 강화론에 입각한 일련의 개혁안을 입안했던 자신의 구상에 빚댄 부러움의 표상이며, 둘째, 후론할 남명(南明) 정권의 부활에 걸었던, 즉 반청복명(反淸復明)에의 기대감이 무산된 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추가하여 박세당은 재상에 의해 매관과 매직이 자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도 포착했다. 풍운현(豐潤縣)의 주인인 왕수재(王秀才)와의 야밤 중 대화를 통한 탐문 결과였다.²⁶⁾ 박세당은 내외의 관직을 제수할 적에, 공사(公私)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주인은 “후혜(厚惠)가 있으면 자리를 챙기고, (후혜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답변으로 매관의 실상을 털어 놓았다. 박세당은 ‘후혜’가 결국 돈(錢)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확인한다.²⁷⁾ 더불어 박세당은 “재상이 매관(鬻官)을 하면, 그 관리는 반드시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인데, (학정을) 어찌 감당해 낼 도리가 없는 백성들은, (결국) 반란(亂)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차후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박세당은 줄곧 반란이 유발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세당이 던진 다소 부담스러운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인은 “작금에는 호걸이 (평범한 일개) 소민(小民) 출신에서 나오는 법이 없고, 오직 (뇌물로 관직을) 받을 따름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애써 예봉을 피

26) 朴世堂, 앞의 책, <庚辰>, pp. 365-366. “過鐵城坎坂橋 夕宿豐潤縣 主人姓王稱秀才 夜與語.” 풍운현은 비교적 북경에 근접한 지역으로, 봉사단은 귀로인 동환 길에서도 이 집에서 묵게 된다(위 책, 387쪽): “壬戌. 微雪. 朝餐于沙流河 渡還鄉河 夕宿豐潤王秀才家. 是行七十里.”

27) 朴世堂, 위의 책, <庚辰>, p. 366. “問 以內外官職除拜公私. 答 有厚惠則得 無則否. 問 厚惠如何. 曰 錢而已.”

해 갔다.²⁸⁾ 이는 과거를 거치지 않은 채 곡식(粟)이나 재물로 관리에 진출한 경우로서, 이른바 연납(捐納) 혹은 연관(捐官)으로 칭해졌다.²⁹⁾ 아무튼 박세당은 인사의 철칙인 선공후사의 기준이 무시된 채로, 만연된 매직 매관의 현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실제 성위(誠僞)·공사(公私) 간의 분별 논리는 박세당이 지향했던 위기 지학(爲己之學)을 실현하기 위한 준엄한 방법론적 논리에 해당한다. 특히 “공사 간 의리(公私之義)” 문제는 그가 귀국 이후에 수락산(水落山) 석천동(石泉洞)에 은둔한 이래로, 누차에 걸쳐 제출했던 사직소의 저변을 형성했던 논리이기도 했다.³⁰⁾ 그는 철저히 선공후사를 지향하려 노력했던 위인이었다. 여하간 이처럼 매관매직과 관련하여 누적된 정보들은, 진(塵)으로 압축되는 박세당의 대청 이미지를 흉중에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급된 고위직에 의한 매관과 독직 양상, 그리고 한족의 차별 실태에 관한 관찰 결과는 귀국한 이듬해에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보고적 평가어로 압축되어 아래처럼 정리되고 있다. 귀국 직후인 기유년(1669) 3월 27일이었다.

“그 (청조의) 정령과 잘잘못(에 관한 정보)은 더욱 엿따하기(探窺)가 어려웠소. 다만 몰래 들어보니, 자못 낭려(狼狽)한 제후(少主)들이 좋은 명어를 드러내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정사를 보필하는 대신들 중에는 탐욕스레 독직(黷職)을 하는 정황도 있더군요. 또한 원망과 비방의 톤이 높은 한인들을 자주 접하긴 했더랬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사실은, (한인들이) 대부분 (내) 질문에 성실히 응해 주곤 했었는데, 탄식을 하거나 분통을 터

트리는 법이 없더군요. (그러니 망국에 대한) 번뇌와 한스러움을 토로하는 자(들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³¹⁾

명재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서래 길에서 엿따한 청의 정국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다. 박세당의 경우 특히 인용된 한인의 사례를 통해서, 일종의 동아시아적 문화적 정통성에 관한 담론이랄 수 있는 존주론과, 이에 기반한 대명 명분론적 사고 또한 급격히 와해되는 국면에 처했으리라 여겨진다. 조선 지식인이 간직했던 오랑캐 만주족에 대한 정서와는 달리, 현지의 한족은 너무나 다른 소회를 간직하고 있었다. 또한 한인들은 대체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더욱이 강희제의 정치력으로 “필경 기울어지는(必偃)”조짐까지³²⁾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현상은 관화(寬和)와 인정(仁政)으로 평가되는 강희제의 치적이 초래한 민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다.

이처럼 무신년 사행을 통해서 획득된 청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성은, 박세당으로 하여금 현실주의적 대청 노선에 관한 사실적 차원에서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차후 박세당은 당시 조선 지성계 내에서 범람했던 대명 명분론적 사고와 그 관념적 허구성과 정략적 간계를 철저히 꿰뚫고 있었다.³³⁾ 그가 우암 주도하의 북벌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그 확신은 연행을 통해서 획득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28) 朴世堂, 위의 책, 〈庚辰〉, p. 366. “問 宰相鬻官 官必虐民 民何以堪能 不至亂乎. 對 當今無豪傑出小民, 唯受之而已.”

29) 傅樂成 著/辛勝夏 譯, 앞의 책, p. 846.

30) 朴世堂, 『西溪集』 卷6 疏劄, 『辭加資兼帶弘文館提學疏』, p. 116. “恩紀雖緣比例混舉 而在於公朝事體, 不免推類太廣之失. 在於微臣畏私 增廣追念不窮之痛, 竊恐非兩盡公私之義.”

31) 朴世堂, 『西溪集』 卷19 簡牘, 『與尹子仁拯』, p. 393. “其政令得失 尤難探窺. 但微聞 少主頗狼狽 令聞不彰. 輔政之人 又有貪黷之聲. 又見漢人多怨謗 而所可異者 皆是隨問勉應 未有咨嗟憤歎者 所以未可信耳.”

32) 『論語集註』 제12, 『顏淵』篇.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 而民善矣. 君子之風 風 小人之德 草, 草上之風 必偃.”

33) 우암 송시열의 反淸北伐論에 관한 논의로는 金駿錫,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 pp. 225-243을 참조.

(3) 淸朝의 범죄자와 叛民 처벌

한편, 박세당은 중원 내부에서 각종 범죄자와 반청(反淸) 세력에 대처하는 청조의 단호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범죄 사안 중에는 인삼을 몰래 채취하다가 발각된 이른바 ‘잠채사’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박세당은 추가적으로 범죄자와 반민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이송, 유배시키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청조가 범죄자와 반민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일관된 대책을 적용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사례들인 것이다.

박세당은 북경에 이르는 서래(西來) 길에서 풍운현의 주인인 왕수재와 야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정탐을 수행한 바가 있었다. 박세당은 주인에게 “(중국 내의) 죄인들을 (주로) 심양과 영고탑 지역으로 이송(徙)한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확답을 접하게 된다.³⁴⁾ 그런데 차후의 정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이, 당시 영고탑과 심양 지역은 중원의 범죄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활용된 정황들이 엿보인다.

또한 귀국 길에서 박세당은 우연히도 원래 북경에 거주했던 한 한인이 몰래 북쪽 깊숙이 진입하여 인삼을 채취(採蔘)하다가 발각된 끝에, 수감에 채워진 채로 이송되는 장면을³⁵⁾ 목격하게 되었다. 다음날 박세당은 삼사(三使) 중에 서장관인 자신을 시종했던 배역(陪譯) 김시징(金時徵)에게 “저 한인(漢人)의 (인삼) 잠채(潛採)가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주문했다.³⁶⁾ 이 지시에 대해서 김시징은 “어피(魚皮) 지방에 이르러서, 잠채사(潛採事)가 발각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34) 박세당, 『西溪燕錄』, 〈庚辰〉, p. 366. “過鐵城坎板橋 夕宿豐潤縣 主人姓王稱秀才 夜與語問 … 問聞多徙罪人 於瀋陽及寧古塔然否. 曰然.”

35) 박세당, 위의 책, 〈庚午〉, p. 388. “庚午 漢人居北京者, 潛往深北 採蔘見發 鎖送至此.”

36) 박세당, 위의 책, 〈庚午〉, p. 389. “且其人潛採 果於何地.”

했다.³⁷⁾ 여기서 운위된 어피지방이란 뒤이은 김시징의 만주권의 풍속에 관한 보고인, “그 (만주)의 풍속은 오로지 채렵(採獵)을 일삼은 탓에 통칭하여 어피달자(魚皮獐子)라 부른다”라는 진술을 참고해 볼 때,³⁸⁾ 만주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간 박세당은 조청 간에도 분란의 씨앗을 안겨 주었던 인삼 채취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음이 재차 확인된다.

기실 지난 시절 후금의 인삼무역은 누르하치가 차후 중원의 제국인 청조로 발전해 나가는 도정에서 중요한 재원조달 역할을 수행한 사업이었다. 인삼이 제공해 주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청조는 심양에서 북경으로 천도(遷都)한 이후에도,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³⁹⁾ 아무튼 청조는 중원 내에서 자행되는 인삼 잠채사 건에 대해서, 여전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례이다.

이에 추가하여 박세당은 청의 범죄자와 반란민이 겪는 처벌 현황에 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박세당은 귀환 길에 북경 근교인 무녕현(撫寧縣)에 인근한 유관(榆關)의 한 가게(店)에서 목격 되었다. 박세당은 유관의 점주(店主)에게 “나는 멀리서 중국에 (사신으로)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눈이 어두운 듯 (식견이 부족)하여(質質), 족히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심히 실망하였소!”라는 그간의 심회를 피력하였다.⁴⁰⁾ 이

37) 박세당, 위의 책, 〈庚午〉, p. 389. “答到魚皮地方 潛採事露.”

38) 각주 56)을 참조할 것. 달자(獐子)는 흉악무도한 야만인(barbarian)을 뜻하는 단어이다. 팔기제도의 기본단위인 니루(牛魯: niru)는 원래 화살(矢)을 의미했던 바, 이 니루는 만주족의 狩獵 관행에서 발전한 씨족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金斗鉉,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 中國史 IV』, p. 149의 각주 36)을 참조). 그러므로 魚皮獐子란 漁獲과 皮物을 위해 수렵하는 흉악한 야만인을 의미한다.

39) 김선민, 『越境 採蔘과 後金-朝鮮의 관계』, 2008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 『조선과 동아시아, 그 만남의 자취』(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pp. 15-16.

지적에 대하여 주인은 “남쪽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과 함께, “다만 고가세족(故家世族)의 경우 경미한 죄(微罪)라도 범하게 되면, 즉각 당사자는 주살을 당하고, 그 처자들은 심양 북쪽(瀋北)으로 이송(徙)을 해 갑니다. (거주지가) 옮겨져 이송된 자들은 서로 (같은) 도(道)에 소속되더라도, 어찌 차마 말이나 나눌 수가 있을까요?”라는 정보를 접하게 된다.⁴¹⁾ 누대에 걸친 문벌 집안인 명조의 고가세족의 경우 사소한 실수를 범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가혹한 정도였음을 시사해 준다.

박세당은 우연히도 명을 대표하는 유민인 고가세족들이 당하는 심각한 차별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순치 친정기 이후부터 보여 준 한인 지배층에 대한 상반된 성격의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청조는 일면 한인관료들을 관대하게 포용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 신사층(紳士層)에 대한 탄압기로 인식될 만큼 탄압이 빈발했었다.⁴²⁾ 이들 한인 신사층은 관직 경력자인 신층(紳層)과 미 입사(未入仕) 학위 소지자로서 중간층을 형성한 사층(士層)으로 구성된 사회계층이다. 특히 청조가 강남 신사층을 탄압한 이면에는 이들 신사층 자체에 대한 탄압 목적 외에도,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청조의 재정보호와 통치기반 확립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측면이 다분하다.⁴³⁾ 유관 점주의 발언 속에는 당시의 이런 사정들이 녹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세당 일행은 연산역(連山驛) 역점(驛店)의 노변에서 수레에 실려진 다수의 부인 무리들을 조우하기도 했다. 한 수레 당 평균 3, 4인

정도가 실려져 있었다. 박세당은 역관(譯官)을 시켜서 그 이유를 알아보게 하였다.⁴⁴⁾ 지시를 수행한 역관은, “도망자를 은닉(藏匿)한 자는 그 일이 발로될 경우, 그 남자는 주살하고 (남겨진) 처자들은 영고탑으로 이송한다”는 보고를 수행했다.⁴⁵⁾ 수레의 수효가 도합 24대였으므로, 줄잡아서 최소 72명에서 96명에 달하는 수의 은닉자 처자들이 강제 이송 중인 상태였다. 여기서 거론된 도망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생략되어 있으나, 중국 내부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사안으로 미뤄 보건대, 도망자 문제에 대처하는 청조의 조치가 매우 단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가령 청조는 조선에서 다시 붙잡아 심양으로 되돌려 보낸, 이른바 피로인(被擄人) 출신의 조선 도회인(逃廻人)들에게는 발뒤꿈치를 절단하는 단지형(斷趾刑)이라는 혹형을 가했다.⁴⁶⁾

그런데 박세당은 전날에 목격한 강제 이송 상태의 은닉자 부인들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해소되질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날 송산(宋山) 소릉하(小凌河)에 위치한 작은 가게의 노상에서, “어제 (강제) 이송된 부인들이 어느 지역 출신들인지”를 문의했다.⁴⁷⁾ 되돌아 온 답변 속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답변자에 의하면, “(강제 이송자) 모두 복건·귀주·운남·광동부(府) 등지의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해간부(海間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곧 반민(叛民)의 처노(妻孥)들로서, 노비 신분으로 전락시켜 심양으로 천배(遷配)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⁴⁸⁾ 덧붙여 상대는 “(도망

40) 박세당, 앞의 책, <乙丑>, p. 387. “風寒. 朝餐于背陰堡 過蘆峯口撫寧縣 夕至榆關宿店 … 臣曰 吾遠來中國 所遇皆質實 無足與語 甚失所望.”

41) 박세당, 위의 책, <乙丑>, p. 387. “其人曰 南土不如是. 但故家世族 稍涉微罪 輒誅其身 其妻子於瀋北. 遷徙者 相屬於道 可忍言耶. 是日行七十里.”

42) 金斗鉉,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講座 中國史 IV-帝國秩序의 完成-』(지식산업사, 1994), pp. 162-164를 참조.

43) 吳金成, 『明·淸時代의 國家權力과 紳士』,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講座 中國史 IV-帝國秩序의 完成-』(지식산업사, 1994), pp. 224-234를 참조.

44) 박세당, 『西溪燕錄』, <辛未>, p. 389. “辛未, 陰大風. 曉發過三首山 … 連山驛, 見驛店路傍 有婦人載車者甚衆. 其一車 各有三四人, 使驛問故.”

45) 박세당, 위의 책, <辛未>, pp. 389-389. “言藏匿逃人者 事發, 殺其男子 移妻子于寧古塔. 凡二十四車.”

46) 世子侍講院, 『瀋陽狀啓』, 丁丑 9월 6일. “今番刷來中三人段 … 逃廻之人 輒施斷趾之刑, 故此等人 亦爲重傷 姑留調治後 計料爲白齊.”

47) 박세당, 앞의 책, <壬申>, p. 390. “壬申. 風未明, 過宋山小凌河 … 路上令更詢 昨日所移婦人 是何地人.”

48) 박세당, 위의 책, <壬申>, p. 390. “回言 並是福建貴州雲南廣東等處人, 海間府人 亦在其中, 乃叛民妻孥 沒爲奴婢 遷配瀋陽者.”

자에 대한 은닉(臧亡) (여부)을 대질하지 않고, (곧장) 영고로 이송되는 자들”이라고도 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어제 역관이 보고했던 내용과는 무척 달랐다.⁴⁹⁾

그러나 답변 내용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록에 채록된 몇몇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도망자를 은닉시키는 범법 행위에 대한 청조의 처벌 수준이 매우 엄격했다는 사실, 둘째, 남명정권과 반청세력이 결집했던 중국 남부지역의 반민들에 대한 대처 방식 또한 매우 단호하고도 가혹한 수준이었다는 점, 셋째, 중원의 각종 범죄자들과 반민들은 심양과 영고탑 및 영고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노역자나 노비로 사역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일 것이다.

3. 淸朝와 몽골의 군사적 동향 정탐

(1) 淸朝의 정국과 距離 탐문

박세당은 청조의 군사적 동향에 관해서도 예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청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실질적인 제국을 수립한 시점은 1683년이었다. 무신년 봉사단이 연경행을 나선 시기는 청이 북경을 점유했던 1644년으로부터 약 22년이 경과했고, 강희제 즉위 7년을 맞는 해였다. 그러나 청의 정국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 북경에서 축출된 명의 관료들과 유민들은 남경(南京)에서 신종(神宗)의 손자인 복왕(福王) 주유송(朱有

崧)을 황제로 삼는 이른바 남명정권(南明政權)을 수립했고, 이후 당왕(唐王)-노왕(魯王)-계왕(桂王)으로 이어진 남명정권은 반청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⁵⁰⁾

이에 더하여 청조는 1640년대 중반부터 1670년대에 걸쳐 동남연해(東南沿海) 지방에서 정지룡(鄭芝龍)과 정성공(鄭成功), 오삼계(吳三桂) 등의 반청세력으로부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1681년에 와서야 오삼계 등의 반란은 종식되었고, 1683년에는 대만의 정씨(鄭氏) 세력도 청에 투항했다. 이처럼 반청세력이 일소되면서 마침내 청은 중원 지배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에 청은 1684년 이후로 해금령(海禁令)과 천계령(遷界令)을 해제함으로써 중원 지배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드러냈다.⁵¹⁾ 동시에 1684년 이전에 번국(藩國)의 사절단에게 적용했던 문금(門禁) 조치도 차츰 완화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무신년 조선 사절단의 경우, 청의 문금 조치로 인해 북경에서의 행보가 그다지 자유롭지가 못했다. 심지어 일행은 청의 정예군인 갑군(甲軍)에 의해서 관소인 회동관(會同館)에서 사실상 관금 상태에 놓인 채로 며칠 밤을 지내기도 했다.⁵²⁾

이와 같은 청조의 정국하에 무신년 조선 사절단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노상에서 접한 거리의 인사들 또한 정보원으로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허다했다. 이처럼 다소 열악한 정탐 여건 속에서도, 박세당은 몇몇 항목에 관해서는 매우 집중적인 탐문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정탐 소재로는 거리(距離) 탐문이 주목된다. 즉 박세당은 연행 왕환 길목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반경 일대지역과의 ‘거리(去)’에 관한 탐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일대지역에 관한 정탐은 북경에 이르는 서래 길에서

50) 金斗鉉, 앞의 논문, pp. 158-169.

51) 韓明基, 「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9(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pp. 209-211를 참조.

52) 이 사안에 관해서는 金鍾秀, 「西溪 朴世堂의 燕行錄과 북경 체류 32일」, 『韓國實學研究』 16(한국실학학회, 2008), pp. 33-35.

49) 朴世堂, 위의 책, 〈壬申〉, p. 390. “非坐臧亡 而徙之寧古者, 所言與昨不同.”

우선적인 정탐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 거리 탐문 속에는 자연 해당 지역의 인구나 조직 등과 같은 부수적 사항에 관한 정탐도 수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박세당은 풍운현 주인인 왕수재와의 야밤 대화를 통하여, 중국 내의 죄인을 영고탑으로 이송한다는 소문의 실상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영고탑에서 북경까지의 거리가 “수천 리”라는 사실을 수집한다. 이어서 “(풍운현에서) 만주와 영고탑 중 어느 지역이 더 먼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다시 만주에서 심양까지의 거리를 문의한 결과 “한 달 남짓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라는 주인의 답변을 접했다.⁵³⁾ 이상의 풍운현 주인과 대화를 통해 시도된 정탐은, 후론될 배역 김시징을 통해 확인한 탐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나아가 박세당은 전술한 한족의 ‘인삼 잡채사 건’을 계기로 하여, 만주를 중심으로 한 반경 일대지역에 관한 상세한 정탐을 시도하게 된다. 이 지역 일대에 대한 탐문은 왕환 길에서 동시에 시도되었다. 박세당은 삼사(三使) 중에서 서장관인 자신을 시종했던 배역(陪譯)인 김시징(金時徵)에게 심양(瀋陽)에서 영고탑(寧古塔), 영고(寧古)에서 만주까지의 거리를 탐문할 것을 지시했다.⁵⁴⁾ 이에 김시징은 “영고에서 심양까지의 거리는 1,700여 리이며, 만주와 영고 간은 불과 300여 리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⁵⁵⁾

더불어 차후 청군이 북경 진입을 위해 일전을 치뤘던 영원성(寧遠城)에 근접한 영고(寧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 지역과 만주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탐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 시절에 청의 누르하치는 바로 이 영원성에서 명의 원숭환(袁崇煥)에게 패퇴(敗退)를 하고 화의를 도모했

53) 朴世堂, 『西溪燕錄』, 〈庚辰〉, p. 366. “問寧古塔去北京幾里. 曰數千里. 又問 滿洲與寧古塔何地爲遠. 曰寧古塔甚遠. 問滿洲去瀋陽幾里. 曰月餘方到.”

54) 朴世堂, 위의 책, 〈庚午〉, p. 389. “臣使陪譯金時徵往問 自瀋陽至寧古塔 及寧古距滿洲幾里.”

55) 朴世堂, 위의 책, 〈庚午〉, p. 389. “答到魚皮地方 潛探事露. 寧古去瀋陽 千七百里. 滿洲去寧古 只三百里.”

다. 누르하치는 영원성을 중심으로 한 명조 측의 북방수비의 위력을 거듭 절감했고, 이를 계기로 북경 진입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연이어서 박세당은 배역 김시징에게 “영고지역에 장군(將軍)[팔기장군(八旗將軍)]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만주에도 또한 통령(統領)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영고에 건준 (만주의) 인구의 다소”정도를 탐문할 것을 지시했다.⁵⁶⁾ 이에 김시징은 “만주에는 통령이 없으며, 또한 영고에 부속되어 있으며,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정황과 보고와 함께, 어피달자로 통칭(通名)되는 만주(족)의 풍속에 관해서도 겸하여 답변을 올렸다.⁵⁷⁾

그런데 박세당이 수행한 이 거리 탐문이 어떤 목적을 겨냥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거리 탐문이 주로 〈만주-심양-영고(탑)-영원성〉 구간에 걸쳐서 집중된 이면에는, 건주여진에서 출발한 후금(後金)이 중원의 제국인 청조로 발전해 나간 노정을 반추해 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 볼 따름이다. 따라서 박세당의 거리 정탐 역시 그 나름의 군사적 정보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反淸勢力 정탐과 反淸復明에의 기대

청조의 군사적 동향 전반에 관한 박세당의 정탐은 당시 조선 사신단이 수행했던 중요한 임무임과 동시에, 서계 개인이 견지했던 대명관의 일단을 잘 노정해 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방면에 관한 박세당의 정탐 속에는 전술한 남명정권의 동정은 물론이고, 삼번으로 대변되는 반청세력의 동향, 대만을 거점으로 장기 할거한 정씨(鄭氏) 일족에 관한 첩보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박세당이 벌인 해당 정탐 내용을 통하여, 강희

56) 朴世堂, 위의 책, 〈庚午〉, p. 389. “又使問 滿洲亦有統領, 如寧古之有將軍乎. 人物多少比寧古如何.”

57) 朴世堂, 위의 책, 〈庚午〉, p. 389. “答滿洲無統領 亦屬於寧古, 人物不多. 其俗專事採獵 通名爲魚皮撻子.”

제 친정기 초반 무렵의 청조의 정국 전반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대로, 이 정보는 조선왕조의 큰 관심사이기도 했다.

우선, 박세당은 역관(譯官) 장현(張鉉)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계미(1643) 연간의 송산(宋山) 전투에서 명군의 대장인 조대락(祖大樂)이 맞이한 장엄한 최후를 간략히 묘사해 두고 있다.⁵⁸⁾ 박세당의 패루(牌樓) 언급에 이어서,⁵⁹⁾ 후대의 박지원 또한 영월성 한길가에서 마주친, 패루의 주련(柱聯)에 새겨진 조대락의 송덕시(頌德詩)를 소개해 두고 있다.⁶⁰⁾ 이 조씨(祖氏) 일족은 요동지역의 무장 명문가 출신이다. 그런 조대락의 종제(從弟)인 조대필(祖大弼) 역시 행산성(杏山城)이 함락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다.⁶¹⁾ 또한 박세당은 송산전에서 오삼계와 연합한 홍승주(洪承疇)가 일전을 치뤘던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와의 압축적인 전황 소개와 함께, 그 치열하고도 비참했던 남병(南兵)의 마지막 장면도 병기해 두고 있다.⁶²⁾ 당시 봉림대군과 소현세자도 직접 참전했었던 이 송산전은⁶³⁾ 청군이 북경을 장악하려는 도정에서, 특히 산해관 진출의 분수령을 이룬 중요한 전투에 해당했다.

청조에 끝까지 항거했던 반청세력을 향한 박세당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

58) 朴世堂, 위의 책, 〈辛未〉, p. 356. “過松山 張鉉言癸未年間 大將祖大樂守此成, 清人攻之三年不下 殺傷甚衆, 及城陷大樂死. 清人怒其堅守 盡坑其民 夷其城. 今有新集之民 凋殘已甚.”

59) 朴世堂, 위의 책, 〈壬申〉, p. 358. “夕至寧遠城 內有祖大壽大樂牌樓 並銅石爲之制 ….”

60) 朴趾源, 앞의 책, 「역마를 달리며(馱汎隨筆)」, pp. 272-273. “松櫓如初慶善培于四世(무덤이 산뜻하여 경사가 네 대에 쌓이고), 琳琅有赫貴永鑿于千秋(자손이 현달하여 영광이 천추에 빛나리).” 또한 주련의 뒷면에는 “桓桓與歌國倚干城之重(노래로 찬송하니 늠름한 모습은 간성의 중책이요), 絲綸錫寵朝隆 醕鼎之褒(임금이 총애하여 기록한 공훈은 금석에 새겼구나).”라고 새겨졌다.

61) 朴世堂, 앞의 책, 〈辛未〉, p. 357. “行山亦祖大弼所守 城陷而死. 大弼大樂之從弟.”

62) 朴世堂, 위의 책, 〈辛未〉, pp. 356-357. “又云 宋山之急也 洪承疇將吳三桂等 十三總兵以下萬衆 來舊奪據城北山, 清人大懼 龍馬二將 請以東兵六白 充前列發砲助攻 所擊盡死 南兵震駭. 承疇棄師而走 軍遂敗.”

63) 朴世堂, 위의 책, 〈辛未〉, p. 357. “又言宋山陷時 先王與昭顯世子 同在軍中.”

지 않았다. 박세당의 정탐은 사천(四川)·운귀(雲貴)·복건성(福建城)의 진수자(鎭守者)와 그 정황 탐색으로 이어졌다. 사실 이 일대 지역에 관한 첫 정탐은 전술한 통원보 문관의 훈장인 김계정과의 문답을 통해서 시도된 적이 있었다. 이때 박세당은 성부(省府)에 건치(建置)된 이 지역에서 반란(叛擻)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탐문을 벌인 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접했었다.⁶⁴⁾ 당시 중국의 남부지역은 북경 입성과 함께 장악된 화북지역과는 달리 남명정권의 반청운동, 그들과 결합한 한인 신사층의 반청기병(反淸起兵), 또한 그에 따른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유구(流寇)와 토적(土賊)의 발흥 문제가 맞물리면서, 내지의 정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소되어야만 하는 청조의 긴급 현안이었다.⁶⁵⁾ 자연 이 남명정부가 평정되기 이전 시점에서, 청의 정세와 민심의 동향에 관한 전반적인 정탐은 조선 사절단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⁶⁶⁾ 그러므로 사천성 이하 사부(四府) 지역에서 반란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문은 암암리에 남명정권과 반청세력의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서 청조가 전복되기를 희망하는, 즉 반청복명에의 기대감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박세당의 관심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이런 기대감은 당시 조선 지성계의 기류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두 번째 정탐은 말투가 다소 망령된 감이 있는 영평부 주인인 한유(韓愈)의 17세손과의 야밤 문답을 통해서 수행되어졌다.⁶⁷⁾ 그는 이 무렵에는, “사천성은 노경왕(老耿王)이 이미 사망해서, 대신에 소경(小耿)이 그 땅을 지키고 있으며, 운귀성의 경우는 오왕(吳王)이 진수하고

64)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 344. “又問 雲貴兩廣福建 並皆建置省府 無有叛擻者乎. 曰不知.”

65) 金斗鉉, 앞의 논문, p. 161.

66)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대청교섭을 중심으로」, 『大同文化研究』 39(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p. 429를 참조.

67) 朴世堂, 위의 책, 〈戊寅〉, p. 361. “平明. 過蘆峯口背陰鋪 … 夕宿永平府. 主人姓韓云是韓愈十七世孫 言甚妄 夜與問答.”

있는데, 오왕은 곧 삼계(三桂)를 의미한다고 전언했다. 그러나 “노소경”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⁶⁸⁾ 다시 박세당은 복건성의 진수자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진수자가 없다”라는 응답을 접한다.⁶⁹⁾ 청의 정국 현황에 대한 박세당의 정탐은 다음날(己卯)에도 계속되었다.

이 정탐은 사하역 주인과의 야밤 문답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박세당은 이 지역의 가을 작황이 전년에 비해 “반 타작(半收)” 수준임을 확인하고, 여타 13성(省)의 연흉(年凶)에 관한 탐색을 시도한 결과, 금년의 경우 산동성이 가장 수재(水災)가 심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⁷⁰⁾ 전날에 이어서 박세당은 운귀·양광(兩廣)·복건·사천성 등지를 진수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탐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대는 시치미를 떼었고, 연이은 질문 끝에서야 겨우 “대략 다들 태평경(太平境)을 누리고 있다”라는 식의 은폐성 답변만을 토했다.⁷¹⁾ 박세당은 사하역 주인에 대하여 정보원 자격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는 보내고 있었다.⁷²⁾ 그럼과 동시에 박세당은 “노변(路傍)에 거주하는 이런 류(流)들의 경우, 조선 사절단(東使)을 많이 접해 본 까닭에, (눈치) 수작(酬酢)에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향을 살펴서 순구편설(順口便說)하며 억양(抑揚)하는 기색이 뚜렷하므로, 말한 바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정보원의 신뢰성에 관한 의구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⁷³⁾

68) 朴世堂, 위의 책, <戊寅>, p. 362. “言四川則老耿王已凶 小耿新守其地, 雲貴則吳王鎮守 吳王者卽三桂. 而問老小耿爲誰 則對不能識其名.” 여기서 ‘노경’은 三藩 중의 한 사람인 경중명(耿仲明)일 것으로 추정해 본다.

69) 朴世堂, 위의 책, <戊寅>, p. 362. “問 福建誰守 則答時無鎮守者.”

70)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3. “此地秋事如何. 答 半收. 問 十三省同然否. 答 外城多被水災. 問 何地最甚 曰山東爲最.”

71)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3. “雲貴兩廣福建四川等地 何人鎮守. 答不知. 因又問 曰 大約俱在太平境.”

72)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5. “其人 亦似稍愚 故隨問以記.”

73)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5. “但見此流居路傍 多閱東使, 故習於酬酢 視人意向 順口

그런 사하역 주인으로부터 박세당은 뜻밖에도 수도(水盜)로 지칭된 정굉공(鄭宏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 답변은 상대의 자발적인 토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하역 주인은 당시 정굉공으로 지칭되는 해상세력의 침탈로 인하여, “사천성 이하 사부(四府) 민중의 생계가 떨거지 상태”로 전락했음을 전언해 주었다. 덧붙여 주인은 “(이에) 황상(皇上)이 직접 수도와 통하기를 요했다”라는 당시 사정을 설명했다.⁷⁴⁾ 그러나 끝내 정굉공의 소재와 향방은 파악할 수가 없었고,⁷⁵⁾ 대신에 정굉공으로 지칭된 해상세력에 의한 사부민의 피살이 “(지난) 5년 가을”에 가장 많이 자행되었다는⁷⁶⁾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선에서 그쳤다. 짐작건대 여러 정황상 ‘정굉공’은 대만(臺灣)을 거점으로 삼아서, 23년간에 걸쳐서 항청(抗淸) 활거를 진행시켰던 정성공(鄭成功)·정경(鄭經) 부자를 오칭(誤稱)한 표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세당은 사천성과 해중(海中)[대만]과의 먼 거리 정도를 감안해 볼 때, 해상세력인 정씨(鄭氏)가 어떻게 이 지역과 상통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이 의문에 관해서 상대는 “어찌 (거리의) 원근을 논하는가?”라는 반문을 해 왔다.⁷⁷⁾ 이 반문은 해중과 육지와와의 먼 거리 정도가 별반 장애요인이 되지 못했음을 시사해 준다. 그만큼 대만을 거점으로 한 해상세력이 막강했던 것이다. 대만의 정성공은 순치 16년(1659)에 남경(南京)을 공략하기도 했고 呂宋(필리핀)을 정벌하려는 기도까지 했었다. 강희 원년인 1662년에 39세의 나이로 죽자, 하문(廈門)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장남인 경(經)이 대를 이어서 항청 활거를 진행했다.⁷⁸⁾ 정경은 삼번의 난을 틈타서

便說 顯有抑揚之色, 所言未必盡信.”

74)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卽又曰 四川下四府生民 一無所有. 問 爲何無存者. 答 曰 皇上要其通水盜. 問 水盜爲誰. 曰鄭宏公.”

75)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問宏公時在何地. 曰不知去向.”

76)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問 四府民被殺在何時. 答 五年秋.”

77)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4. “問 鄭是水盜 常在海中 四川去海絕遠 緣何相通. 答 何論遠近.”

북건·광동의 연안에 다시 세력을 확장했고, 삼번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는 한때 동남 연해의 중요한 할거세력으로 등장했으나 점차 세력이 약해져 갔다. 아무튼 의외의 계기로 촉발된 박세당의 '정평공' 탐문은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다. 또한 해상세력인 정씨 일족의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서, 명조 부흥(復興)이라는 염원이 촉진되기를 기대했던 사정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는 전술한 남명정권과 삼번으로 지칭되는 반청세력에게 걸었던 기대감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3) 몽골의 犯境 사태 : 喜峯事

더불어 박세당은 몽골의 범경(犯境) 사태에 관해서도 예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끈질긴 정탐을 병행해 오고 있었다. 특히 박세당은 몽고의 희봉구(喜峯口) 침범 사안을 희봉사(喜峯事)로 약칭하면서,⁷⁹⁾ 근년에 유발된 희봉사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주력하였다. 그러나 '희봉사'로 약칭된 몽골의 범경 사안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저변의 사정을 묻어 두고 있으므로 몽골의 희봉구 지역에 담긴 역사적 이해를 잠시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629년 10월 2일, 후금(後金)의 홍타이지는 심양을 출발하여 명에 대한 공격, 곧 북경 점령 길에 나섰다. 그는 명조 최후의 보루인 원숭환이 절벽처럼 버티고 있는 영원성으로 향하는 루트 대신에, 전략적 차원에서 몽고족들이 살고 있는 만리장성의 외곽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홍타이지는 장성 동북쪽의 희봉구와 영평부(永平府) 관할인 용정관(龍井關), 그리고 준화(遵化) 관할의 대안구(大安口)라는 세 곳을 통과해서 직접 북경 부근으로 진입하는 기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이 기습 전략은

78) 傅樂成 著/辛勝夏 譯, 앞의 책, 765쪽.

79) 朴世堂, 앞의 책, 〈戊寅〉, p. 362. “問喜峯事 則初云未聞 屢問乃言 亦有是事觀其人.”

원숭환이 굳게 지키고 있던 영원성과 산해관을 우회해서 북경을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특히 희봉구 진입 시에, 홍타이지는 평소 공들였던 몽골의 코르친(科爾沁) 부족을 향도로 내세웠다. 이는 진작에 혼인 정책 등과 같은 몽골 부족에 대한 회유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고, 마침내 산해관 동북쪽의 장성 외곽을 우회 돌파하려 했던 후금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 우회 진입 전략으로 인하여, 산해관에서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주공로(主攻路) 방어에 집중하고 있던 명군은 허를 찔리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이미 원숭환은 정확히 예견했었다. 원숭환은 일찍이 승정제(崇禎帝)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하여, 산해관을 제외한 장성 외곽지역의 방어 태세가 몹시 취약하다는 점, 따라서 후금이 몽골을 회유하여 쳐들어 올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명 조정은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동년 10월 26일, 후금군은 황성(皇城) 코앞의 경기(京畿) 지역까지 들이닥쳤다.⁸⁰⁾ 뒤이어 후금의 간계(奸計)에 놀아난 어린 승정제의 처사로 인하여, 명조의 운명을 마지막까지 부지했던 원숭환은 되레 소환되어 처형되는 비운을 맞이하고야 만다. 이상의 부연 설명을 통하여, 희봉구 지역이 명조의 멸망과 관련하여 깊은 유서를 간직한 공간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세당이 희봉사 염탐에 주력한 이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다.

박세당의 희봉사 탐문은 일차적으로 전술한 통원보의 한 문관의 훈장인 김계정을 통해 수행되었다.⁸¹⁾ 박세당은 김계정에게 몽고족이 희봉구를 침범했다는 소문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저 또한 그와 같은 소문을 접하기는 했으나, 미처 그 실상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다.⁸²⁾ 그

80) 이상의 내용은 [서울신문]에 기획 연재된 한명기의 ‘아픈 역사에서 배우다’: 〈병자호란 다시 읽기〉 시리즈 중에서, no.47(2007/11/28)과 no.50(2007/12/11) 부분의 관련 내용을 적절히 재구성하여 반영한 결과임.

81) 김계정의 신상 정보에 관해서는 각주 12)를 참조할 것.

82) 朴世堂, 『西溪燕錄』, 〈辛酉〉, p. 344. “問 傳聞蒙古來犯喜峯口 此言信否. 答 吾亦聞此 未審其信. 遂辭而歸 頗有畏忌之色. 是日行六十里.”

런데 김계정은 회봉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었고, 답변을 꺼려하는 기색 또한 역력해 보였다. 그는 결국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는 되돌아갔다. 이날은 60여 리를 행진했다.⁸³⁾

몽골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두 번째 정탐은 한 조선 피로인(被擄人)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행되었다. 그는 병자호란 적에 피략(被掠)된 과천(果川) 상초리 출신의 피로인이다. 당시에 그는 요동 근지에 거주하면서 농장 노예인 장노(莊奴)로 사역하고 있었다.⁸⁴⁾ 박세당은 이 피로인에게 “근년에 몽골이 관의 지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는 “금년(1668) 봄에도 몽골 지역은 몇 년째 이어진 흉년이 겹쳤고, 시장(場)이 열리기를 바랐으나, 미가(米價) 상승에 분노한 나머지, 드디어 소와 말을 겁탈(劫取)하였고 인명을 상해한 끝에, 곡류(粟) 60바리를 약탈해 왔다”라는 그 간의 정황을 털어 놓았다.⁸⁵⁾ 이어서 이 조선 피로인은 “금년처럼 가문 해에는, (양식 부족으로) 7월이 되면 당연히 (관의 지역을) 재침할 듯 하나, 일시적으로 당장의 원성은 사그라진” 상태임을 전언해 주었다.⁸⁶⁾ 그런데 이 정보는 몽골의 범경 사태가 군사적·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자연재해인 잦은 가뭄과 이로 인한 연이은 흉년 때문에 야기된 양식부족과 같은 생계문제가 범경을 촉발한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박세당은 애초 회봉사 정탐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감 역시 퇴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탐문에 앞서서 박세당은 북경에 이르는 서래 노정 중에 사하역 주인

83) 朴世堂, 위의 책, <辛酉>, p. 344. “遂辭而歸, 頗有畏忌之色. 是日行六十里.”

84) 朴世堂, 위의 책, <壬戌>, pp. 344-345. “壬戌 未明發. 逢胡人訪以地名 見臣下馬拜 又能爲東語. … 本居果川霜草里 爲宣陵守護軍 年十六歲. 遇丙子被掠于蒙古而來 … 執時居遼東近地爲莊奴.” 조선인 피로인의 현지 정착 양상에 관한 논의로는 金鍾秀, 『17세기 朝淸 間 移住의 몇 유형』, 제8회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원 학술대회 『역사와 문학 속의 이주』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원·이민인종문제연구소, 2008), pp. 32-38.

85) 朴世堂, 위의 책, <壬戌>, p. 345. “問 聞蒙古近犯關外 汝知之乎. 曰今年春蒙古 以其地連年凶歉, 求開市 而怒米價高, 遂劫取牛馬 傷害人命 掠粟六十車以歸.”

86) 朴世堂, 위의 책, <壬戌>, p. 345. “今年若無水 七月當再來 而時姑無聲息矣.”

을 통해서, 이미 회봉·요동 등지에 대한 몽고족의 침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박세당의 이 질문에 대하여 주인은 “회봉 (지역은 사하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나, 지금껏 (그런 소문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만 응답했다.⁸⁷⁾ 이어서 박세당은 주인에게 “13성(省)에는 전혀 도적이나 절취(竊發)의 화난이 없는지”를 질의했으나, “아직 듣지 못했다”라는 회피성 답변에 직면했다. 그러나 누차 질문한 끝에, 마침내 상대는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어느 방면이 가장 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대는 “몽골이 가장 골치거리(首)”지역이라는 사실을 실토했다.⁸⁸⁾ 사하역 주인의 실토했을 통해서 박세당은 몽골의 범경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였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된 박세당의 회봉사 정탐은 청조를 향한 몽골의 “모반(謀反)하는 실상”을 정탐하는 성격이 다분하다.⁸⁹⁾ 회봉사로 대변되는 몽골의 범경 사태가 함축하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박세당은 이미 전록(前錄)과 앞선 봉사단을 통하여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초 회봉사에 걸었던 박세당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회봉구 사태는 정치·군사적 배경에서가 아닌, 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취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유형의 절취 행위는 일종의 관행처럼 정착한 가운데, 후대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유발된 정황도 있다.

87)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 363. “聞蒙古向者 來犯喜峯遼東等地信否. 答喜峯不遠 絕未有聞.”

88) 朴世堂, 위의 책, <己卯>, pp. 364-365. “問 十三省絕無盜賊 竊發之患乎. 答未聞. 屢問乃曰有之. 問 何方爲尤. 曰蒙古爲首.”

89) 『顯宗實錄』 현종 10년 3월 4일(丁酉). “慶億曰: 喜峯口部落甚強 故淸人畏之 而至於謀反 則未有實狀.” 귀국 후의 보고석에서 정태화의 회봉구 지역에 대한 질문에, 정사 이경익이 답변한 부분에 해당한다.

4. 맺 음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정치·군사적 분야에 걸친 박세당의 대청 점국 내용의 대체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1668년 연행에 나섰던 조선 사절단의 경우, 병자호란이 발발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32년 만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함께, 명청 간의 왕조 교체기라는 동아시아적 국제질서 재편과 맞물리면서 점국의 대상과 강도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서장관 자격으로 동지사 사절단에 합류한 박세당은 연행 경험을 토대로 두 종류의 연행록(燕行錄)을 남겼다. 특히 『서계연록』은 병자호란이 남긴 여파를 수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조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탐문 내용을 수록해 두고 있어서, 강희 7년을 전후한 청조의 정국 전반에 걸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곧 당시 조선왕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기도 했다. 금번 논의에서는 수록된 내용 중에서, 주로 정치·군사·사회 분야와 유관한 내용들을 취급했다. 또한 정탐된 내용들은 박세당이 현실주의적 대청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식론적 계기들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박세당이 시도한 점국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그 역시 일정 부분 이상의 명분론적 대명관을 견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여 박세당은 무신년을 전후하여 청조를 압박했던 일련의 정국 변수들이 반청복명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길 갈망했던 것이다. 또한 명의 유민 신세로 전락한 한족의 차별 실태에 대한 박세당의 관심은, 가칭 '호한분리(胡漢分離)' 의식으로 명명할 만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 이 점 저문 명조를 향한 그의 명분론적 인식의 일단을 잘 대변해 준다.

더불어 박세당은 청조가 각종 범죄자 및 반민들에 대처하는 처벌 방식에 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을 영고탑이나 심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모습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안이었

다. 이들은 노역자나 노예 신분으로 사역될 처지였다. 또한 박세당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일대지역의 '거리' 탐문도 병행했다. 이 점은 지난 만주지역의 후금 시절에서 중원의 제국으로 발전해 나간 청조의 역사를 반추해 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박세당은 남경을 거점으로 삼은 남명정권의 활약상과 삼변을 위시한 일련의 반청세력의 군사적 동향 파악을 위한 정탐에 주력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정광공'으로 지칭된 해상세력에 관한 정보 또한 박세당을 한껏 고무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희봉사'로 약칭된 몽골의 범경 사안과 더불어, 은연중 반청복명을 염원했던 박세당의 기대감은 차츰 퇴색될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청조의 강희제는 점차적으로 이들 반청세력을 진정시켜 나갈 국면으로 전회하고 있었고, 희봉사 또한 정치·군사적 야심에 의해서 촉발된 사안이 아닌, 긴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야기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 간 기준을 벗어난 인사정책을 성토했던 박세당의 언성과는 달리, 청제는 그 정치적 교화력이 민생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으로 부각되고도 있었다.

이제 박세당이 시도한 일련의 정탐 내용은 분명한 시사점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것은 무의미한 의리론적 명분론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기초한 실질을 추구하는 길에 관한 암시였다. 박세당은 무신년 연행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주의적 대청 노선에 대한 '사실적' 차원에서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신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막강한 청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길, 차후 조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박세당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9. 1. 5, 심사수정일 : 2009. 1. 13,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박세당, 대청인식, 청조, 점국, 한족의 차별, 범죄자 및 반민 처벌, 거리 탐문, 대만의 해상세력, 희봉사, 반청세력, 반청복명

<ABSTRACT>

A Study on *Seogye Park Sedang's* Spying for *Ching*,
China

Kim, Jong-su

Seogye Park Sedang was most active after the mid-seventeenth century. In this period, China had the change of the dynasty from *Ming* to *Ching*. China. The change meant the reorganization of an international order in Eastern Asia. Then *Joseon* had to be adapted to the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the *Ching* Dynasty led. At that period, dispatched envoys from *Joeseon* to Peking tried spying called *Jeomguk*(覬國-secretly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competitor or hostile country to decide how to act). *Park Sedang* also did that as an envoy. He spied out all the areas of *Ching*-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specially he centered on the movements of *Ching's* military, the situation of the *Ching* Dynasty,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 race(漢族) who had been *Ming's* people. After his spying, he found out that the Han race were seriously discriminated by *Ching's* local government offices.

The *Ching* Dynasty was threatened by the counterforce-the South *Ming* Government(南明政權), *Sambeon*(三藩-one of the most powerful local families) and some marine forces secured a strategic point on *Taiwan*(臺灣). So the *Ching* Dynasty's early political situation was somewhat unstable. However, the dynasty brought the counterforce under control step by step and had command of China. So its political situation was being stabilized. Park had placed his hope on the counterforce's rebellion against *Ching* that could

overthrow of the dynasty. Its stable political situation was contrary to *Park's* expectation. He had to give up his hope. After all, the results of his spying inspired Park to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hing* Dynasty more closely in reality.

Key Words : *Park Sedang*, spying, *Ching* Dynasty, *Seogyeyeonrok*(西溪燕錄), *Jeomguk*,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 race, the movements of *Ching's* military, punishment for rebellion and crime, hope on the counterforce's rebellion against *Ching*, diplomatic relations in reality